



송하진 도지사는 13일 서울 국회를 방문하여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사진 왼쪽)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사진 오른쪽)를 만나 2020년도 국가 예산확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주 충경로 '사람의 거리' 원도심 상점가 할인 '두 배'

시, 16일 방문객 대상 추가 할인 이벤트 진행
에너지전환 박람회 등 볼거리·참여공간 운영

다가오는 주말 전주 원도심을 찾는 시민과 여행객은 주변 상점가에서 다양한 물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전주 원도심 상점가들이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다 주말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을 기념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풍패지관(객사) 앞 충경로 사거리에서 다가교까지 충경로 600m 구간의 자동차 운행을 통제하고, 차가 비워진 도로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 없는 사람의 거리에서는 전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공간과 전북에 있는 여러 청소년 동아리의 활동을 홍보하고 체험하는 청소년거리도 조성된다.

신계수 전주시 사회경제지원단장은 "차들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를 이날 하루는 아름다운 도시공원처럼 조성해 방문객들이 편하게 즐기고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는 도로의 주인이 차가 아닌 사람이라는 행사의 취지를 각인시켜 차 없는 거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차 없는 사람의 거리의 원활한 진행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충경로 해당 구간에 대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한편, 해당 시간에 운행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공구거리와 전주천 도로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임시 조정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는 공무원과 경찰, 모범운전자,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우회도로 안내 등 차량통제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 우회도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공구거리와 전주천 도로, 시청주변 등의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원도심 상인회와 할인 이벤트 관련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이벤트에 참여할 상가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매일 INDEX

4면 - 전통시장 분당, 문화공간 개방

“예결소위 위원 전북 배정 ‘절실’ ”

송하진 도지사,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국회 방문

송갑석 예결소위 위원에 필요성·당위성 적극 설명

김재원 예결위원장·예결소위 위원 등 찾아 현안 건의

송하진 도지사가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대 확보를 위해 국회를 재차 찾아가 예결위원장, 예결소위 위원 등을 방문하는 등 국가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전북에 예결소위 위원 배정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달 30일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방문한 데 이어 또 다시 국회를 찾는 등 분주한 행보에 나선 것은 내년도 예산이 12월 2일이면 결정됨에 따라 남은 3주가 매우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또 국회 예결소위에 전북이 배제됨에 따라 그동안 소외와 불균형을 겪어온 전북의 아픔이 더 커질 것에 대한 우려에 따라 예결소위 위원 배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소위 위원 등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도정의 주요 핵심사업이 20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전북에 예결소위 위원 배정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 면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함께 방문해 호·영남간 인적·물적 교류 수송체계 구축을 통한 동서 화합 촉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타당성용역비 10억원과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5억원 등 7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건의했다.

김광목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만나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농생 명밸리육성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50억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서수-평장 개설사업 30억원 등 5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예결소위 위원인 송갑석 의원에게는 한국 유향과 실화의 중심지 전북에 전라유학진흥원이 설립 될 수 있도록 시설계 용역비 5억원,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 7억원과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송하진 지사는 예결소위에 전북이 배제된 것은 산업발

과정에서의 소외와 불균형을 딛고 군산형 일자리 조성,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및 농생명 융복합 신산업 창출 등 새로운 전북대도약을 꿈꾸는 전북도민들에게 또 한번의 아픔을 안기는 셈이라고 항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로운 도약의 노력과 기운이 전북 도처에서 꿈틀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과 영남, 충청 위주 예결소위 위원 선정으로 전북이 배제된 것은 전북도민들에게 전북대도약의 싹을 자르는 것과 같은 아픔과 상실감을 주는 것이다”며 “그간의 불균형을 씻고 새로운 전북대도약을 향해 나가는 전북의 아픔과 고통, 희망을 적극 공감하고 전북의 노력과 열정을 받아들여 전북에 예결소위 위원을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예결소위 위원인 강홍식 의원에게는 2023세계잡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계잡버리대회 기반시설 설치비 35억, 새만금 상수도시설 설치비 10.8억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예산 반

영 지원을 피력했다.

예결소위 위원인 최인호 의원을 만나서는 중소기업의 특화된 성장환경 구축과 신성장 산업 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130억원, 기능성 소재부품 기업역량 강화 12억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반영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억원 원안 통과와 민방위실전체험훈련장 건립비 15억 등 5개 사업에 대해 반영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2020년 국가예산이 이결되는 마지막까지 지역 주요사업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각력 심사에 이은 증액 심사에 대비해 전방위적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는 20일 재차 국회를 방문해 각 당 지도부 등을 면담하여 2년 연속 7조원 확보 목표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도체육회,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9명으로 구성

전북체육회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13일 도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민선 첫 체육회장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을 선임하는 등 본격 선거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체 위원 중 외부인사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체육계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최낙준 변호사, 서연희 우석대 교수, 신기현 전북대 교수, 정경희 전북대 교수, 이규정 전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상철 전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장, 조석창 전북중앙신문 기자, 김성희 도 체육회 이사, 박영자 도 체육회 이사 등이다.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후 회의를 열고 선거일(투표일) 결정, 선거인 수 배정,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 등록,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등 회장 선거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송주빌딩5F